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섭리 -에스다-

에스다 4:13-17, 마테복음 28:18-20

정윤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에스더서의 특징과 배경

1. 에스더서의 내용

2. 위기 속에서 승리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신앙의 비밀

- (1) 에스더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준비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인도를 받는 지혜와 여유를 가진 사람
- (2) 모르드개 :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하는 강직한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

결론 :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 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 영생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완성하는 다짐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소원을 붙잡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의 상처와 잘못된 생각,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후대들이 이번 기회에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미션을 발견하고자 한다.

(1)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역사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경이다.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합하여 성경 전체는 66권이다. 구약 첫머리의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 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하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시가서, 지혜서라 하고, 나머지를 선지서라 한다.

(2)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이다. 군대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친구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한 적이 없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이, 떡볶이 한 접시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나와 같이 교회로 가게 되었다. 군대에서도 그랬다. 꼭 복음 메시지를 하고 영접을 시키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빛이다. 그러면 어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나는 목사이지만 자녀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로 하지 않는다. 내가 누리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시대에 노방전도를 했었는데, 에스더도 그렇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러면 전도를 못 했나? 아니다.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꺾였지만 250년 만에 로마는 정복되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도 다니고 전도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다. 행위를 바르고 훌륭하게 하라는 게 아니다. 부족해서 넘어질지언정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행복을 찾았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너도 구원이 필요한 것 같아.”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역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 입으로만 ‘하나님,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며, 어떤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누리라. 에스더, 모르드개처럼 어려운 환경도 정복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뭔가 다르다. 행복함이 보인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다.

(3)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왕이 아하수에로다. 페르시아를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일반 세계사에서 키루스(Cyrus)라고 가르치는 왕이다. 고레스는 강력한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었고, 수십 년 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유대 백성을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 아들이 캄비세스(Cambyses) 왕이었고, 그 핏줄은 아니었지만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우스(Darius)다.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확장시켰는데, 그 후

에 그리스와 두 번 전쟁을 치렀다. 그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 한다.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페르시아가 패했는데, 첫째 싸움은 싸우러 가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서 해군 함선이 난파하여 끝났고, 두 번째 싸움이 유명한 마라톤 전투다. 이 전쟁이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 도시국가는 병력이 페르시아에 비해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전쟁에 투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민들은 자기 재산과 가족,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군대가 되었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 아닌가. 그래서 적은 숫자였던 그리스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마라톤 전투에서 졌던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Xerxes)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리스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2007년에 나왔던 ‘300’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전쟁이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크고 남작다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기록에 착안하여 영화에서 묘사를 했는데 참고 정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300’이라는 영화는 페르시아 군이 육로로 쳐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테르모필라이 협곡에서 스파르타 군대 300명이 싸웠던 것을 그린 것이고, 후에 또 나온 ‘제국의 부활’ 영화는 페르시아 해군과 아테네 해군이 싸웠던 살라미스 해전을 그린 것이다. 페르시아 군대는 육지에서는 이겼으나 해전에서는 아테네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의 뛰어난 지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에서 패퇴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테네의 모든 평민들은 나라를 지켰다는 점에서 다 평등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어, 그 결과 민주주의가 꽃피게 된 것이다. 페르시아 배의 노꾼들은 노예였기에 남의 일 하듯이 노를 저었지만, 그리스 시민들은 자기 일로 직접 생각하며 노를 저었다. 그러니 싸움의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전부 자기 일로 생각하고 해야 한다. 그 시대의 제국들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꺾박받던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1.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

(1) 왕후가 된 에스더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터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에1:1). 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에1:4). 왜 잔치를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벌였겠는가?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지방 지도자를 모으고 단합대회를 한 것이다. 역사상 이런 인물은 크세르크세스(아하수에로) 뿐이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불렀지만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절한다. 왕이 취중에 불렀으니,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 모르드개의 사촌여동생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다.

(2) 하만의 유대 민족 말살 음모

이때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고관이 있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모르드개였다. 이것 때문에 원한을 품은 고관였던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 유대 백성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므로 모두 죽여야 한다. 이 일을 하도록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왕에게 아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온 나라에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로 조서가 선포되게 되었다.

(3)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기도와 결단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개가 벼슬을 입고 통곡하며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하게 한다. 왕에게 말하여, 유대 민족을 구하도록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다. 나는 성경을 깊이 읽을 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모르드개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랬을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성격이 되게 간간했던 것 같다. 왕 앞에 나아가라는 말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모르드개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개는 믿음이 강직한 사람이었다. 하만은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4)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안 그래도 예쁜데 특별 다이어트까지 했으니, 에스더가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는가.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 버렸다. 왕 앞에 무단으로 “무슨 일로 나아왔느냐, 나에게 말해라. 내가 나라

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 자기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 이게 대단한 것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잔치에서 바로 말했을 것이다.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하고 조금까지 말했겠는가. 그러나 에스더는 강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험레벌떡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여자들이 믿음의 종다. 그래서 여자들이 불신앙하고 조금하면 희망이 없다. 아하수어로 왕이, 왕비에게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잔치에 초대한다고만 하니가 궁급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궁중일기를 읽게 했다. 그런데 그 궁중일기에, 왕을 암살하려 했던 자의 음모를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개였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개를 포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것을 의논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다. ‘누구 없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궁중에 들어오고 있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개를 죽여 장대에 매달기를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불러서 묻는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상을 주어야 좋겠느냐?” 하만은 그 상을 받을 자가 자기인 줄로 착각한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우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말을 끌게 하여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하기를, 저 왕궁 문 앞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개의 앞에서 말을 끌고 성을 돌면서 외치게 된다. “백성 여러분, 왕에게 존귀함을 얻게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지혜로운 자와 자기 부인이 예언을 한다. “당신이 과연 그 유대 사람 앞에 굴욕을 당했다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여자다.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모르드개를 죽이도록 피를 알려준 것도 이 여자였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나가서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했다. 이제 두 번째 잔치 자리가 되어서, 왕이 도착하자마자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물었다.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 남자의 심리,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다. 잔치를 두 번이나 열었으니, 왕이 궁급하지 않다. 그 궁급함을 증폭시켜 놓고, 이제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 하고 고발한 것이다. 왕이 엄청나게 놀라서 말한다. 예7:5을 보라.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덩치도 큰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한다.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가신다. 만약 언약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다.

(5) 부림절

결국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한 날 하만은 죽어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리고,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날을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부림절로 지키고 있다. 유대 민족의 씨가 마를 위기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에 과자를 먹는데, 그 과자의 이름이 하만의 귀라고 한다. (웃음)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께 이같이 멸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이런 말에는 아멘을 안 하셨다. (웃음) 구약시대 때에는 이랬지만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겠고, 진짜 원수는 사단 아닌가. 이것을 파멸시키는 최고 방법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위기 속에서 승리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1) 에스더의 신앙

- ①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외모적으로도 아름답게 준비한 하나님의 딸이었다. 부모님이 없고 사촌오빠 밑에서 자라면 망가지기 쉬운데, 에스더는 오히려 더욱 자신을 잘 가꾸었다. 외모도 별로인데 믿음도 없으면 어떡하나. (웃음) 억울하니까, 최소한 믿음이라도 에스더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웃음) 내 눈에는 여러분이 다 예쁘시지만 말이다. (웃음)
- ② 에스더는 문제 앞에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르드개가 괜히 에스더한테 그랬구나 싶었을 수도 있다. “네가 나가서 왕 앞에 가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겠으나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찌 아느냐.” 이렇게 세계 말했더니, 에스더가 복수하는 것이다. (웃음) “가서 모든 백성과 함께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얼마나 고생 되겠다? 나도 3일 금식을 여러 번 해 봤지만, 물을 마시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물도 안 마시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런데 지금 그

걸 모르드개에게 시키고 있지 않다. 복수도 저절로 하지 말고,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해야 한다. (웃음)

③ 에스더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성령인도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조금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떨고 핑계대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 조금할 수 있고 금방 말할 수 있고 금방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에스더는 기도하다가 그 지혜를 얻었던 것이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하수어로 왕이 헐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단계를 밟아간다. 피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지금 세상에는 하만과 같은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환경이다.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이겨야 한다.

(2) 모르드개의 신앙

- ①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강직한 사람이었다. 교회 안에도 간간한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이 또 교회를 지키게 된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다 자기 부름에 합당한 역할을 한다. 회사도 그렇다. 아홉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을 여러분이 보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예10:3에 보니까,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가. 이런 지도자, 정치인 경제인 지도자들이 우리 후대 중에서 나오게 될 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 ② 모르드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다. 권력에도 하만처럼 아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왕비가 된 에스더 앞에서도 당당했다. 자기가 키운 아이가 왕후가 되었으니, 가서 이익을 취할 만도 한데,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다.
- ③ 모르드개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만큼 인격과 지혜와 실력을 갖춘 지도자였다. 나는 우리 후대 중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9:2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게 되었다’고 했다. 예9:4에 보면,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런 응답을 장로님들이 받으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몇 가지 소중한 믿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 (1)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보여 주셨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 (2) 부모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자라게 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민족 살리고 나라를 살릴 일꾼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까지 작용하시기에, 우리는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하게 생각하지 마라. 대신에 생명권 헌신을 하라. 3천 제자가 일어났을 때 내가 공헌하고 헌신한 바가 아무 것도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개인과 가문, 환경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 (3)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믿으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주님 밖에 없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케 될 것이다.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자.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고 배운 말씀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에스더와 모르드개 뿐 아니라 나와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